

News

21개월만에 최대 찍은 신용대출, 8월도 2조 이상 늘어날 듯

연합뉴스

5대 은행에서 1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1조4천884억원으로 집계...지난달 말에 비해 9영업일간 1조2천892억원이 늘어...2조원대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은행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신용대출은 이미 두달 연속 사상 최대 증가세...신용대출 상당수는 주택관련 자금 수요로 추정...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도 일정 부분을 차지

신용대출-주담대 금리역전...금융당국 규제 강화 부르나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1~2등급 신용대출 주담대보다 저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4일 기준 신용등급, 대출금액에 따라 연 1.74~3.76% 수준...같은 기간 주담대는 연 2.03~4.27%를 기록

금융당국, 은행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연장할듯

연합뉴스

9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연장할 것으로 보여..."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LCR 비율 규제 완화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
"이전 LCR 규제를 단기간에 맞추라고 하면 은행들이 고유동성 자산 매입에 서두르게 되고 그러면 시장이 충격...유동성 문제는 은행들이 여유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빅3 금융지주·빅4 은행장 곧 임기만료...보은·문책인사 나오나

매일경제

금융권 인사가 9월부터 본격화...KB 윤종규 회장 3연임 가능성...하나 김정태 회장 "연임 뜻 없어"...NH 김광수 · DGB 김태오 회장 내년초 임기 끝으로 물러날 듯
주요 시중은행장 중에선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등 4명이 오는 11월~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

저축은행 수신액 70조원 돌파

한국경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70조7080억원으로 집계...지난해 6월 60조원을 넘어선 지 1년 만에 70조원을 돌파
저축은행 예 · 적금 잔액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5월 말 기준으로 연 1.92% 수준이던 저축은행 금리의 매력에 상대적으로 부각됐다는 분석

주가 오르자 변액보험 '후곤'...미래에셋생명, 절반 '씩쓸이'

한국경제

증시 활황에 힘입어 변액보험시장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오랫동안 변액보험에 특화해온 중위권 보험사들이 잠잠한 수익
생명보험사들이 올 1~5월 거둬들인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8,6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지금 추세라면 2013년 이후 7년 만에 2조원 돌파할 것

'실손보험 병원에서 바로 청구' 제안...가입자 편의 ↑

연합뉴스

한 해 9천만건에 이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건수를 건강보험 정보망을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을 보험연구원이 제안...
실손보험 이용자 4분의 3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팩스(31%), 보험설계사(23%), 방문(16%), 우편(6%) 수단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

“00페이 폐업하면 환불은?”...당국, 선불충전금 보호장치 마련한다

데일리안

‘충전금’ 신탁 · 지급보증보험 통해 분리 관리...총액 미일치시 감독당국 보고...폐업 시 한달 내 공시 · 환불 공지해야...“자금 운용 투명성 · 소비자 피해 예방”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과 같이 자금이체업(송금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이용자 자금 전액을, 송금업을 하지 않고 대금결제업만 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을 보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